

투데이 칼럼

오래된 청년(Old youth) - (上)

현직 외교부 직원들로 구성된 '한국의교협회'에 스키동호회가 결성된지 7년째가 된다. 2009년 말 은퇴 후 선배 회원들의 성화로 2010년 가을 동호회를 설립하여 15~6명이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 5회 정도 용평에서 1박2일로 낮에는 스키 실력을 연마하고 밤에는 현지 시절의 아쉬움을 나눈다. 몇 년전 부터는 일본 스키 탐방도 시작하여 이젠 연례 행사가 되었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의 주무대였던 하쿠바에 14년 2월, 니이가타현 유자와의 나에바에 15년 2월, 홋카이도의 투즈츠에 16년 2월, 올해 1월 하순에는 나가노현의 시가코겐에서 사나홀릭 슬로프를 순례했다. 투즈츠를 제외하면 모두 해발 2천미터가 넘는 일본 북알프스의 스키장이다. 60대에서 80대 사이의 은퇴 회원 10명 내외가 참여했다.

왕년에 유럽, 북미, 일본에서 근무하며 주말을 이용하여 틈틈이 배운 실력이라 은퇴 시절에 상급 수준에 달한 회원은 드물지만 열정만은 그 이상이다.

은퇴 후 주어진 여유시간을 이용한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상급에 이른 회원이 상당수가 되었다. 만 82세의 두 회원도 매년 일본탐방에 참여하여 노익장을 과시한다. 나머지도 70대 후반을 포함하여

경로급 이상이 많지만 고령사회 일본의 스키장에서는 눈에 띄는 나이는 아니다. 부츠를 등에 메고 플래이트는 어깨에 메고 손에는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것은 젊은이들도 귀찮은 일이지만 설원을 누비는 꿈에 빠져 이 힘든 일을 기꺼이 감수한다. 이 일이 더 귀찮아질 때는 이제 늙었다는 신호일 터이다.

Samuel Ullman의 시 "Youth"의 첫 구절은 바로 우리를 지칭하는 것이니 체력이 허용하는 한 이 귀찮음을 이기고자 다짐하며 겨울을 기다린다.

(Youth is not a time of life; it is a state of mind; it is not a matter of rosy cheeks, red lips and supple knees; it is a matter of the will, a quality of the imagination, a vigor of the emotions; it is the freshness of the deep springs of life.)

Youth means a temperamental predominance of courage over timidity

of the appetite, for adventure over the love of ease. This often exists in a man of sixty more than a boy of twenty. Nobody grows old merely by a number of years. We grow old by deserting our ideals...)

올해 탐방지인 시가코겐은 21개의 스키장에 75개의 리프트가 있는 1913년 일본 스키의 시발점이자 일본 최대의 스키지역이다.

용평의 리프트가 12개이니 그 규모를 비교할 수 있다. 온 지역이 스키장이라 1주일을 타도 다 섭렵하기는 어렵지만 4일간 가능한 여러 곳의 슬로프를 경험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를테는 계속되는 눈보라와 무릎까지 빠지는 폭설을 헤치고 나갈 실력이 안되어 중도 포기하였으니 사실상 3일간의 스키가 되었다.

숙소인 Prince호텔이 자리한 아케비타이마에서 2일, 서둘버스로 한

시간 거리인 요코테아마에서 하루를 보냈다. 유감스럽게도 그 중간지대인 이치노세는 눈보라 때문에 제대로 점검할 기회가 없었다.

아케비타이마 스키장의 곤돌라가 내리는 지점은 해발 2천미터인데 첫날과 넷째 날의 날씨와 슬로프 상태는 최상이었다.

나가노 올림픽에서 두 종목의 경기가 열린 곳인데 이 두 코스를 80대의 선배들과 모두가 무사히 점검하였으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슈미터가 쌓인 자연설 슬로프는 미끄러지지 않고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어 우리 모두 스키 전문가가 된 기분이었다.

시가코겐 지역에서도 가장 높은 산의 양쪽에 조성된 요코테아마 정상은 해발 2천3백7m였다. 그 곳에 세계 최고도에 위치한 뿔뿔이라는 설상의 여관, 요코테아마산 정상 등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진 캄터가 있었다. 설산 정상에서 오렌만에 Bosch soup 을 접하여 빵과 먹으니 환상이었다.

Borsch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 동유럽의 전통적인 수프인데 홍당무, 양배추, 당근등 야채에 사우어 크림을 넣은 것으로 추운 겨울에는 이 뜨거운 야채 수프 생각이 많이 난다. 오렌만에 먹으니 수심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계속)

독자제언

보행자 도로위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도로위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음에도 '차가 알아서 멈추겠지, 차가 알아서 피해 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며 위험하게 도로를 가로 질러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38%가 보행자라고 한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주간보다 야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보행자 사망 사고 중 고령자의 비율이 절반에 해당되는 50%정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보행자 사망자 중 약 20%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로 보행자의 안전의식 부재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는 '횡단보도 통행권 반드시 일치정지' '신호위반·속도위반 금

지' '시외권 마을지역 과속 금지' 운전중 휴대폰사용·졸음운전 금지' 등을 지켜야 하고, 보행자는 '횡단시 횡단보도로 걸기' '횡단시 도로 좌우 살피며 횡단' '도로 위 넘거나 지는 행위 금지' '야간 보행시 밝은 옷 입기' 을 잘 지켜야 한다.

엄청 무겁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차량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도로가 보행자에게 위험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행자는 목적지에 빨리 가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하기보다, 주위를 잘 살피고 스스로 최대한 안전한 방법을 통해서 도로 위에서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하며 자신을 지켜야 한다.

유형주 남원경찰서 도동지구대 3팀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졸음운전은 자살운전·살인운전

운전자를 괴롭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졸음운전이다.

나 자신도 모르게 깜박하는 순간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자신은 물론 상대방 운전자들에게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져 목숨을 잃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졸음운전은 고속도로 전체사고의 약 31%를 차지하며 치사율은 두 배 이상이다. 뿐만 아니라 졸음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17%에 상응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음주운전보다 사고위험이 1.2 배 높다고 한다.

졸음운전 사전 징조로는 예컨대 운전 중 자주 눈을 깜박이거나 하품을 하게 되며 시야가 흐려지고 머리를 들어올리기 어려워며 차선을 오라가라 하면서 앞차에 바짝 붙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창문을 활짝 열면서 휴게소로 이동하는 것이 좋

다. 그렇다고 고속도로 갓길로 주차하여 놓고 쉬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식사 후에는 우리 신체 내에서 소화를 하느라 체내에 많은 산소량을 소모하기 때문에 차내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져 졸음을 느끼게 된다.

운전 중 졸리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바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전하기 전 안전벨트를 필수적으로 매는 습관처럼 졸음운전 피치법 또한 습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졸음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무리한 자동차 운행은 지양해야 한다.

박재원 전북지방경찰청 기동대 순경

사설

청년층의 탈전북 가속화 현실

청년층의 탈전북 현상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전북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 지자체는 적금의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 지 궁금하다. 저번에 청년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동안 전북도와 각 시군은 그에 대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알고 싶다. 아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궁금할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다. 지난날 이같은 불만을 수도 없이 했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에 할 말이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전국 1위의 실업률이라는 성적표를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는가. 현실이 이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식어 이제 썩어갈 지경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을때도 갑자기 둔한 탓이다. 청년 취업을 이 미미한데도 어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없으니 무슨 이유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의 이 현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선 안 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정신차려야 한다. 혁신도시의 공공

기관들 역시나 그렇다. 다들 청년 고용에 동참해야 한다. 언론사가 카메라를 들이 댈 때만 협조하는 척 할 게 아니다. 청년 고용 열기가 식지 않도록 다들 진정성을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아직도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도내에 일자리가 부족하니 탈 전북 가속화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는 청년 실업이 전북도가 파악하고 있는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미취업자들은 전북도가 때때마다 발표한 실업률의 수치가 공감하지 않고 있다. 대졸자 몇 명 중 네 명이 백수인 게 팩트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일자리 찾기에 지친 젊은이들이나 시간제 일자리에서 힘들어 하는 젊은이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들은 결혼이나 인생 설계 같은 장래 희망을 말하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청년들의 입장을 역지사지해야겠다.

서민들이 식탁물가를 걱정하고 있다

도내 서민들이 식탁물가를 걱정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5개월 연속 1%대의 인상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이제 2%대의 물가 인상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이다. 1월 내내 어두운 소식만 밀려들더니 이제는 시장 물가마저 서민들의 속을 뒤집고 있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가 고민을 좀 해야겠다. 지금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에게 주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저번에 호남지방통계청이 보고한 것을 다시 상기해야겠다. 1인당 총수입액이 전국 최하위였던 것 말이다.

우리 전북의 현실이 가난한 지역의 대명사처럼 돼버린 전남보다도 못하다니 문제이다. 정말이지 가난한 세대의 미래가 난감하다. 도내의 근로 빈곤층 중에는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세대도 적지 않다.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도내 모 언론사의 보도를 보니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막아야 한다는 기사가 있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그에 대해서도 미리 대책을 세워야겠다.

도민 열 명 중에 네 명 꼴로 빚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다는 예전

의 보도가 다시 생각난다. 그때의 그 보도는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다. 전북도가 내놓은 것이기에 전북도의 관계자들은 지금도 생각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주고 싶은 말이 요지는 분명하다. 근로 빈곤층을 망각해선 안 된다. 근로 빈곤층의 담판 문제는 먹고 사는 일이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버거워하고 있다. 그 빈곤층 중에는 비정규 직장인이 많은 까닭이다. 전북도가 근로 빈곤층의 입장을 헤아리고 살피야 하는 이유이다.

서민들이 식탁물가를 걱정하고 있는 이때, 민생 경제 살리기에 힘을 쏟아야겠다. 거주 인구가 하향 고착화 현상을 보인지 오래 됐는데 전북도가 그 까닭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근로 빈곤층의 요구를 포함해 민생 경제를 잘 살린다면 좋으려니와 그게 희망사항에 그치고 만다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그동안 전북도는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여러 번 공표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므로 분발해야 한다. 전북도는 서민들이 먹고 사는 일에 두리뎛음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